

전남 동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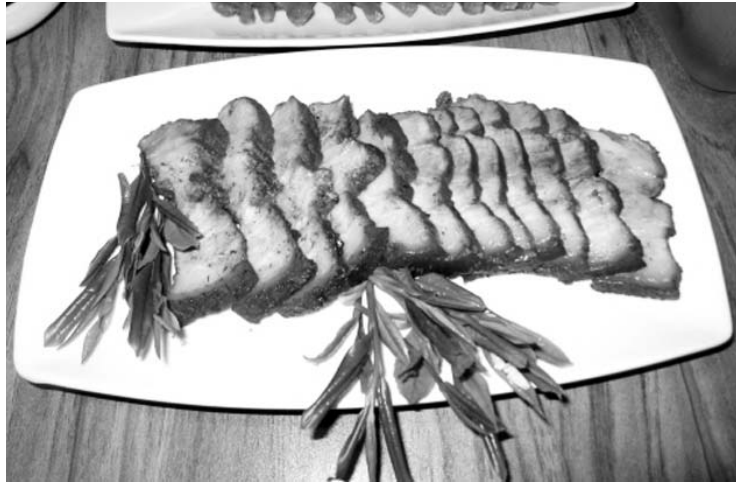
# ‘보성 녹차 쌈채’ 나왔다

### 녹차연구소, LED 광원 이용 생산기술 개발

녹차잎이 기호음료를 뛰어넘어 쌈채 재료로 변신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는 최근 비닐하우스 안에서 LED 광원을 이용해 연중 쌈채용 차잎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연구진은 적색·청색·적색+청색 LED 광원과 무처리 등 4개 방법을 이용해 녹차잎 기호성과 기능성에 대해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 결과 적색+청색 혼합 LED를 사용할 경우 차잎의 총아미노산 함량 및 차잎 수량 부분에서 우수했고, 적색 LED는 ‘카테킨’ 함량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의 감칠맛을 더해주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을 가진 ‘테아닌’ 함량은 적+청색 LED에서 1.33%(무처리 1.26)로 가장 우수했고, 총아미노산 함량도 2.27% (무처리 2.

13)로 가장 높았다. 차잎의 생육 역시 적색+청색 LED에서 새순의 생장이 가장 우수했다. 단위면적당 수량은 적+청색 LED에서 74g으로 무처리 대비 115%로 가장 높았고, 적색 LED는 71g, 111%였다. ‘카테킨’ 함량은 적색LED를 비했을 때 10.6%로 무처리 9.6% 대비 110% 증대됐는데 이는 적색 LED에서 차잎의 광합성 작용이 최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녹차연구소 박종대 소장은 “원래



차는 녹차나 발효차 등 제다(製茶) 과정을 거친 후 물에 우려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쌈채로 부식으로 이용할 경우 생선의 비린내 제거, 육류 특유의 냄새 제거, 지방분해와

더불어 차의 기능성분 섭취가 이루어져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 선암사 사찰 문화재 전수조사

### 순천시 재산 관리자자격 해임 후속 조치

순천 선암사가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암사는 조계종·태고종 협상위의 합의에 따라 28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선암사가 보유한 모든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선암사 측은 “조계종·태고종 협상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최근 회의를 열고 ‘선암사 성보문화재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선암사 관계자는 “순천시가 40여년간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를 해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산관리인 자격을 해임해달라고 요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천시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선암사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해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찰내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2400점의 문화재를 비롯해 수장고 내 관음불상 균열 문제, 수장고에 보관중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10대 시왕상과 관공 등의 조각상 문화재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9일에는 성보박물관 수장고를 언론에 공개하는 행사도 갖는다.

한편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쟁으로 인해 지난 197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함에 따라 지금까지 순천시가 재산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재산관리 문제를 놓고 순천시가 선암사와 갈등을 빚다 재산관리인 해임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순천시는 최근 재산관리 관련 서류들을 선암사에 넘겼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여수산단 불법 관로 즉각 철거”

### 市, 소유사에 이설 계획수립 제출 통보

여수시가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광주일보 3월 18일 10면)된 여수산단내 원료이송 관로에 대해 철거를 지시했다. 여수시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관로 소유사들에게 오는 4월 13일까지 이설조치 계획수립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만약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적법한 관로는 여수산단 원내 동 와이엔택에서 낙포교 1.5km구간에서 도시계획선 25m내에 설치된 것으로, N사 등 5개사 18개 원료이송관로가 적법했다. 이들 관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시

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선 내에 무단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이설 조치는 여수산단 조성 이래 가장 대규모로 단행된 것으로 이순신대교 개통을 앞두고 박람회장을 연출하려는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뤄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 관로는 즉각 철거와 고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한해 경고 조치하고 자진 철거 기회를 줬다”며 “향후 관련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관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재해 대비 모니터링 동남아 전수

### ‘여수 프로젝트’ 3차 과정 베트남 등 9명 참가

해양분야 개도국 지원 사업인 ‘여수 프로젝트’ 1차년도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3차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수 프로젝트’는 정부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과정에서 국제 사회에 공약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해양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 3차 사업은 ‘연안환경 보전 및

재해대비 모니터링’ 과정으로 운영되며,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피지·투발루 등에서 총 9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육생들은 2주간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해양환경관리공단, 서울 종합 방재센터 등에서 한국의 연안환경 보전과 재해대비 모니터링 기술을 배우게 된다. 조직위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해양환경관련 분야 기

술향상을 지원하고,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여수프로젝트 2차, 3차년도 사업은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외에 PEMSEA(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IMO(국제 해사기구),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 해양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 세계 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열린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예순 넘어 깨친 한글 행복”

### 고흥 봉래도서관 노인 한글교실 인기

고흥군 ‘봉래 작은 도서관’이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로 3년째 맞는 한글교실은 매년 30여명의 노인들이 자리를 잇는 채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하다. 특히 지역 할머니들의 배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강사들은 모두 지역출신들로 자신의 시간을 쪼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인들은 한글교실을 통해 한글을

깨친 후 직접 우편물을 찾고, 은행·농협업무도 보며 자신의 손으로 이름을 써서 통장을 만들고 사용해 흐뭇해했다. 또한 도서관에서 손자들과 동화책도 같이 읽고, 좋아하는 트로트와 민요가사를 배우는 시간은 인기가 매우 높다는 것.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문맹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길중기자 gjju@

# 전 북

# 익산 ‘보석 클러스터’ 신·구 영업다툼 격화

### 주얼팰리스·보석판매센터 동일 주제 축제 동시 개최

‘보석의 도시’ 익산시가 건립한 국내 최대 귀금속·보석 전시 판매센터 ‘주얼 팰리스’가 총체적 부실논란(광주일보 3월 22일 11면)에 이어 동일한 주제의 축제를 비슷한 시기에 개최, 기존 영등동 보석판매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영등동 보석판매센터는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2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만여점의 보석을 출품,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 45회 보석대축제’를 열고 있다. 이에 맞서 ‘주얼팰리스’는 익산시 후원으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72개 업체가 참여한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이라는 주제의 축제를 개막했다. 이처럼 한 도시에서 동일 성격의 2개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으로써 익산시의 상징인 보석의 신뢰성을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 귀금속보석가공업 협동조합 김세천 이사장은 “영등동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된 곳”이라며 “지난 1975년 정부로부터 귀금속보석 수출 특화산업으로 지정된 국내 유일 보석가공공단과 1989년 국내 유일 귀금속 판매센터가 이미 개관된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2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22년 전통의 보석축제를 놔두고 또다시 보석관련 축제를 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궁리 주얼팰리스협회 이병순 회장은 “영등동 보석판매장이 이미 지난해 말 전북도와 임대가 만료돼 축제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이번 축제를 열었다”며 “현재 이곳도 72개 업체가 익산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와 영업을 하고 있어 불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축제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류정영기자 knews@



“지리산이 키운 봄나물 사세요” 구례 5일 장을 찾은 상춘객들이 지리산에서 채취한 봄나물을 구매하고 있다. 3·8일에 열리는 구례 5일 장은 예로부터 영·호남사람들의 문화소통의 장이자 지리산 지역에서 나는 약재나 나물로 유명하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kwangju.co.kr

# 도내 市 고용률 전국 하위

### 54.4%로 9개 道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아

지난해 4·4분기 전북도내 시·군·구 고용률이 전국 9개 도별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지역은 전국 평균 고용률을 밑돌아, 중간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66.3%)였다. 9개 도별 시·군·구 평균 고용률은 3.0%로 제주가 1.5%로 가장 낮았고, 전북은 3.1%로 충북(3.5%)과 경기(3.3%)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9개 도별 군지역 평균 고용률은 59.7%로 전북의 경우 이보다 1.9% 높은 6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실업률은 1.8%로 전북은 이보다 0.5% 낮은 1.8%로, 경남(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구례 5일 장을 찾은 상춘객들이 지리산에서 채취한 봄나물을 구매하고 있다. 3·8일에 열리는 구례 5일 장은 예로부터 영·호남사람들의 문화소통의 장이자 지리산 지역에서 나는 약재나 나물로 유명하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kwangju.co.kr

# ‘남포들녘 보리축제’ 내달 30일 개최

‘제36회 남포들녘 경관보전 보리문화축제’가 다음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김제시 상덕면 남포들녘 317ha에서 개최된다. ‘푸른 들녘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마을’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의 향수와 동심을 불러일으켜 추억을 담아가도록 참여와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보리문화의 볼거리·먹거리·놀거리·참여거리를 소재로 한 남포 들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으로 총 35개의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성대함 남포리 주민들은 행사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위해 지난 2월초 행

사를 주관할 10여명의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매주 3~4차례 만나 축제의 기획과 세부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등 축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제위원회의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특산품인 참보리쌀, 김제 특미, 지평선 누룬지 등의 소비를 촉발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성기자 hnews@

#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평가’ 종합 2위

전북도가 농수산식품 수출 주관의 지난해 대비 146% 증가한 2억 달러를 달성했다. 전북도 2위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억 3700만달러를 달성, 수출 성장률 33.2%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로

지난해 대비 146% 증가한 2억 달러를 달성했다. 전북도 2위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억 3700만달러를 달성, 수출 성장률 33.2%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로

# 순창 ‘공장설립 기동지원팀’ 인허가 신속 처리

순창군이 ‘공장설립 기동지원팀’을 구성·운영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입주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기동지원팀은 ▲공장설립지원반 ▲건축소방지원반 ▲도시환경지원반 등 3개반(22명)으로 구

성태 관내에 공장을 설립 또는 증설하려는 기업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군은 최근 한국시멘트(주)의 공장설립인허가 민원을 3일 만에 처리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